

한국 문학과 성

金 亭 子*

차 례

- | | |
|---------------------|-----------------|
| 1. 생물학적 성과 에로티즘의 문제 | 3.2 1950년대 |
| 2. 금기와 위반으로서의 성 | 3.3 1970년대 |
| 3. 한국 문학과 성 | 3.4 1990년대 |
| 3.1 1920~30년대 | 4. 금기회귀와 성의 허무감 |

1. 생물학적 성과 에로티즘의 문제

생물학적인 성이라는 것은 우선 세포 속의 염색체 상의 성을 말하며, 둘째로는 신체 내부의 성징의 분화와 발달을 유도하는 호르몬의 분비에 의한 성(호르몬 상의 성), 셋째로는 生殖巢의 차이에 의한 형태적인 구별을 할 수 있는 성(해부학적·생리학적인 성), 넷째 성기의 형태(해부 생리학적인 성), 다섯째 성기의 외부형태(형태학적인 성) 등의 요인으로 나누어 구별하고 있다.

인간과 동물의 생물학적인 성의 기능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유사점이 있지만, 동물들의 성적 행동은 주기적인 호르몬의 분비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본능적인 양태를 보여 준다. 동물에 있어서는 또한 신경과 내분비선에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의해서 조절되어 임의적인 것보다 자연적인 주기에 의해 발정과 교미가 일어난다.

인간에게는 주기적인 호르몬의 영향을 다소 받기는 하지만, 그보다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사랑을 느끼는 대상과의 인간관계가 더 큰 작용을 하는 것이어서,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 없게 되고 경계를 하며 성행위로까지 가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 된다. 인간에게는 환경적인 요인과 내적 요인이 성에 대해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성이란 것은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사작용의 하나인 것이며 생물의 존재 자체가 성기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에 있어서의 존재의미란 것도 바로 이 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고 인간은 “오!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 꽃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것을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하기도 하지만, 과학적인 냉정성으로 볼 때 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식물의 생식기인 것이다. 사람이 만일 동물의 생식기를 보고 “오! 아름답다!”고 했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 환자라고 할 것이다. 꽃이라는 식물의 생식기와 동물의 생식기가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꽃을 선호하는 행위와 동물의 생식기를 선호하는 것을 전혀 별개의 행위로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성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며,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본능 그 자체이며 자연 그대로인 것이다.

여기에 인간은 인위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성의 자연성에 인간의 욕망을 첨가함으로써 인간의 성은 끝없는 절대 고독과 고뇌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근간에서 바타이유의 에로티즘이 대두된다. 에로티즘도 생식의 한 특수한 형태이지만 자연 본래의 목적과는 별개의 심리적 추구로 승화된 것이다. 에로티즘은 인간의 내적 삶의 한 양상이다. 인간의 에로티즘은 동물의 성행위와는 다르며 인간에게 고유한, 무한히 복잡한 내적 동기에 호소한다. 인간의 성행위는 단순히 동물적인 단계에서 벗어날 때 에로틱한 것이 되는 것이다.

2. 금기와 위반으로서의 성

바타이유의 에로티즘을 근간으로 하여 '성'을 '금지'와 '위반'의 문제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푸코는 우리 사회가 동일자와 타자들을 나누는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그 나눔의 체계 속에는 '가치판단'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데 그 가치판단은 단순한 이론적 평가의 문제가 아닌 권력의 문제들을 대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눔의 이 편과 저 편에 존재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깊은 골이 패여진다. 나눔을 통해 스스로를 정립하는 자는 동일자가 되고 그 나눔의 경계 밖으로 밀려나간 자는 타자가 된다. 이들을 나누고 분절시키는 가치의 척도는 극히 비객관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그는 동일자 안에서 가치정립적으로 사유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동일자의 바깥에서 사유하는 것을 원한다. 그의 사유는 동일자와 타자가 만나는 극한선상에서 설립한다. 그의 사유를 '바깥의 사유', '타자의 사유'라고 일컫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¹⁾

동일자/타자의 분할은 바타이유의 금지/위반에 해당된다. 금기는 동일자의 사유에, 위반은 타자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여기서 동일자/타자의 분절이 비객관적인 것처럼 금지/위반의 경계 역시 마찬가지다. 바타이유는 에로티즘의 근본을 금지와 위반으로 본다. 금기가 전통에의 수렴이며 세속의 세계인 반면에 위반은 자연으로의 회귀를 요구하며 신성의 세계다.²⁾ 위반이 자연으로의 회귀를 요구한다고 해서 위반과 자연으로의 회귀가 같은 말은 아니다. 위반은 금기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번 뒤흔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기를 준수하고 금기에 복종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의식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범하는 순간 우리는 고뇌를 느끼며 고뇌와 함께 금기가 의식되고 죄의식도 함께 느끼게 된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우리의 의식은 그 위반을 즐기기 위해 금기를 지속시킨다. 금기를 어기려는 충동과, 금기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고뇌를 동시에 느낄 때 비로소 에로티즘의 내적 체험은 가능한 것이며, 이는 금지와 위반의 상호 보존관계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할

1) 푸코, 전계서, pp. 15~23

2) 바타이유, 「에로티즘」(조한경 역, 민음사, 1993), pp. 16~17

수 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이성의 세계를 건설하지만 인간의 내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폭력이 도사리고 있다. 그 폭력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성과 금기의 시간만으로 부족하며, 신성의 시간, 즉 위반의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신성의 시간이 없어진다면 남는 것은 이성의 시간 뿐이며 이성적 시간만이 남게 되면 폭력을 다스릴 방법이 없게 된다. 이성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이어야말로 가장 무서운 폭력이다. 바타이유는 현대사회의 소외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금기위반의 이론을 내세운다. 그는 위반의 철학을 수용하지 못하는 철학은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단언한다.³⁾ 위반이야말로 인간 내부에 있는 폭력을 잠들게 하는 방법, 바르트의 말을 빌자면 폭력을 속이고 피해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폭력이 해소된 후에 금기의 세계는 당분간 질서를 되찾는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철학은 디오니소스의 철학이다. 즐겁과 도취와 즐거움의 철학, 이성의 입장에서는 금기와 살해의 철학이다.⁴⁾

노동이 금기의 세계를 지탱하는 것이라면, 금기를 위반하고 세속의 세계를 관통함으로써 신성에 이르는 에로티즘은 희생제의와 더불어 위반의 대표적인 행위가 된다. 에로티즘은 금기를 들쭉심으로써 그 한계와 경계의 붕괴를 확인하고 존재의 융합을 경험하면서 존재의 연속성에 이른다. 그러나 존재의 연속성은 또다시 붕괴의 운명을 맞이해야 한다. 그 부인할 수 없는 개체성은 바타이유의 “절대고독과 그로 인한 현기증”으로 설명된다. 이는 라캉의 ‘결여’와 상통한다. 존재의 융합이나 연속에 대한 끝없는 욕망은 부인할 수 없는 개체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⁵⁾

위반으로서의 에로티즘이 금기를 극복하고 신성과 축제의 세계에서 도취와 즐거움을 누렸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끝내 절대고독에서 해방될 수 없는 것이다. 동시에 위반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금기의 폭력성을 드러낸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바타이유는 금기의 세계에 우위를 둔 위반의 개념을 이야기한다. 즉, 위반의 의의는 금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기를 초월하고 완성하는

3) 바타이유, 전제서, pp. 68~69

4) 김 현, 『폭력의 구조/시칠리아의 암소』(문학과지성사, 1992), p. 105

5) 아니카 르메르, 『자크 라캉』(이미션 역, 문예출판사, 1994), pp. 121 이하 참조

것이다. 금기와 위반은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상호보완적으로 공존하는, 그리고 그 공존의 계기를 통하여 내재적 신성성을 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⁶⁾ 금기는 '명사', 위반은 '동사'이다. 금기는 제도의 폐각(貝殼)이라면, 위반은 그것을 끝까지 부정하면서 오히려 강화하는 동사형이다.

금기와 위반의 이러한 양상에 주목하여 여기서는 그것이 상호대립적 차원에서부터 상호보완적으로 공존하는 차원까지를 문학작품을 통해 다양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말하자면 '성'의 문제가 문학작품에서 금기를 깨뜨리고 '위반'을 추구함인가, 아니면 결국 위반을 통해 금기의 세계로 회귀하고 마는 것인가, 그렇다면 문학에서 성의 문제는 결국 무엇을 의미함인가. 이런 문제들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 소설 속의 '성' 문제를 중심으로 거론하기로 하겠다.

3. 한국 문학과 성

3.1. 1920~30년대

1920~30년대 소설에서의 성은 금기와 위반의 양극점을 왕래하면서, 다시 금기의 체제 속으로 회귀하거나, 또는 위반의 세계로 확산되어 나가려는 벡터(vector) 운동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위반은 수단일 뿐 '금기'로 회귀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 되는 경우를 금기 회귀의 위반이라고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살펴 보면 대개 다음과 같이 된다.

- 현진건, 「정조와 약가」- 결혼/매춘, 윤리/반윤리의 서열화, 차별화(목적/수단)
- 김동인, 「약한 자의 슬픔」- 사랑의 신성성 부정(이환, 남작, 의사와의 동시적 사랑)

6) 바타이유, 전제서, pp. 9~10, 167이하 참조; 박동찬, <에로스 사드 바타이유> (《사회비평 13》, 1995), pp. 89~93 참조

→참사랑/肉體的 사랑의 서열화

「발가락이 닳았다」- 결혼의 신성성 부정(“유곽다닐 비음을 절감하기 위한 결혼”)→혈통/의사혈통에의 집착

「광화사」, 「광염소나타」- 예술/성의 서열화, 차별화(목적/수단)

· 이 상, 「날개」, 「봉별기」, 「지주회서」- 순결/매춘부기절의 동일시, 아내/창부의 동일시→일부일체제적 정서

「동해」- 임이의 다중적 정조관(‘운’과 ‘삼’에 대한 각각의 정조, “신선한 도덕”)→“곰팡내나는 도덕성”, “일착”에의 집착

현진건의 「정조와 약가」는 결혼과 매춘, 윤리와 반윤리의 문제를 서열화하고 위반을 그 수단으로 삼았을 뿐 중국에는 ‘금기’의 세계로 회귀함을 그 목적성으로 하고 있다. 김동인의 경우 「약한 자의 슬픔」은 사랑의 신성성을 부정하는 위반을 통하여 참사랑이 육욕적인 사랑보다 우위임을 서열화하고 있다. 이상의 「날개」는 성의 금기를 철저히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극히 도덕성 높은 일부일체제적 정서를 함유하고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비정상에 의한 정상의 회화화를 드러내고 있는 금기 위반의 경우다. 염상섭의 「제야」, 「수절대기」는 위반을 통해 일부일체제, 정조, 결혼, 구원의 폭력성을 드러냄으로써 위반을 당연시한다. 「제야」의 남편/정인은 도덕/부도덕의 도식에서 구원자/피구원자 혹은 죄인의 도식으로 변모된다. 앞의 도덕/부도덕의 대립에서 정인은 억압/자유, 봉건/근대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었으나, 후자의 구원자, 즉 관용과 용서의 주체/죄인·객체의 도식으로 변모했을 때 정인이 자신의 존재 당위성을 주장할 근거는 아무데도 없었다. 그것은 결국 정인의 자살로 귀결된다.

그러나 박태원은 「천변풍경」, 「진통」 등에서 위반을 통해 금기, 즉 정조 개념을 회화화하고 있어 당대의 다른 작가들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⁷⁾ 「천변풍경」에서는 정조개념이 회화화된다. 두 번의 결혼과 한 번의 인신매매에도 불구하고 금순의 정조는 지켜진다. 두 번이나 방기한 정조가 금순을 팔아넘기려는 전달에게 낙찰되나, 그 남자 역시 경찰서에 끌려감으로써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정조는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가 아니라, 어디에도 부하되지 못한 짐으로 하락하여 결혼제도와 함께 회화화된다. 「진통」에서는 작사

7) 이 경, <한국근대소설에 나타난 근대성 연구>(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7) 참조

랑하던 여인으로 인한 절망이 결국 여인의 산통을 자신의 하복부에 격렬한 진통을 느끼는 것으로 전화됨으로써 사랑과 정조개념을 회화화시킨다.

한편 김유정의 작중인물들은 제도 속에 살지만 그에 대한 위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의 무구한 웃음은 제도의 배면을 꿰뚫는다. 원가상환의 가족 관계(혈연 친륜의 관계이기보다는 교환가치로 환산되는 관계), 결혼/매춘, 사랑/난봉의 동일시(“첫날밤의 성행위는 허락받은 강간”(바타이유))라든가, 아내의 매매, 아내의 매춘 등 결혼과 매춘이 공존하며 일부일처제나 혈통의, 바깥의 사유를 가지고 있다. 삼자동거라든가 남편과 손님, 친자/비친자의 동일시 등 이런 것들은 상식에 대한 위반이라 하겠으나,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인간에 대한 긍정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3.2. 1950년대

1950년대 소설에서 정비석의 「자유부인」을 살펴보면, 장태연교수와 부인 오선영의 관계에서 남편/아내는 억압/자유, 엄숙함/웃음, 정신/관능, 즉 금기/위반 혹은 억압/자유의 도식에서 출발해서 도덕/타락으로 통속화되고, 결국 구원자/피구원자로까지 그 수위가 조절된다. 금기에 대한 위반, 즉 위반함으로써 금기의 폭력성을 드러내려던 시도는 금기의 주체인 남편에게 구원자의 관용과 권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자유부인」도 결국 금기회귀의 위반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상태인 것이다.

3.3. 1970년대

1970년대 김승옥의 「무진기행」의 경우를 살펴보자. 무진기행은 윤희중의 귀향과 귀경으로 이루어진 여로형 소설이다. 서울/무진은 햇볕/안개, 책임/무책임, 전진/퇴행, 아내/하인숙 등으로 대비된다. 하인숙과 세 남자-박, 조, 윤희중-의 관계양상은 동시성의 사랑이며 다중성, 다층성의 사랑이다. 이들의 관계 양상은 다음과 같다.

하인숙 ← 박 (연애편지를 통한 짝사랑)
하인숙 → 조 (결혼요청)

하인숙 ← 윤희중 (사랑)

하인숙 → 윤희중 (서울로 데려다 줄 것을 요청)

오히려 조와 박은 각각 세속과 순수성이란 차원에서 그 욕망의 단일성을 나타내지만 하인숙과 윤희중은 순수와 세속성이 혼합되어 욕망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윤희중과 하인숙의 사랑은 서울로 데려가려는 욕망과 서울로 따라가려는 욕망으로 구체화된다. 서울로 데려가려던 윤희중의 하인숙에 대한 사랑은 미래와 제도의 권력에 닿아 있다. 서울로 따라가려는 하인숙의 윤희중에 대한 사랑 역시 미래와 목적의 권력에 닿아 있다. 그러나 윤희중의 사랑은 제도와 권력을 넘지 못하고 가족과 서울로 귀착한다. 윤희중의 제도회귀적 방향성은 하인숙과의 사랑을 미래화하려던 욕망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이에 비해 하인숙은 서울로 따라가려는 욕망으로 구체화되는 미래와 목적의 제도적 담론에서 결국 벗어난다. “선생님이 여기 계신 일주일 동안만 후회 없는 사랑을 할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하인숙이라는 여성에게는 성과 사랑의 자유와 함께, 제도의 폐각 밖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내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서울과 목적이라는 명사형의 금기적 사유에서 벗어나, 무진과 현재라는 부정형 대대로를 승인하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하인숙은 나의 “부끄러움”을 일깨우는 매개물로 작용하는 것이다.

3.4. 1990년대

1990년대는 성이 미학적인 문학적 장치도 없이 거칠게 노출된다. 성은 금기위반과 극단적인 과소비 현상을 불러 일으키고, 인간의 정서를 지치고 고갈하게 하는 황폐한 침전물로 남게 된다.

하일지, 『경마장 가는 길』 장정일, 『너희가 재즈를 믿느냐』
 이순원, 『압구정동에 비상구가 없다』 박일문, 『살아남은 자의 슬픔』
 하재봉, 『블루스 하우스』

소설의 서사구조는 성교를 시작으로 성교의 중간과 끝으로 마무리짓는 이른바 섹스적 구조로 짜여진다. 그들은 ‘성기의 명칭’을 노출 서술하고 이들은 정전과피의 전사들로 불리워질만큼, 필연적이고 합리적인 구성을 원칙으로 하

는 소설의 윤리를 파괴시키며, 성행위의 디테일만 전경화함으로써 성의 금기를 지상의 논리로 지키려는 소설의 정전에 끊임없이 도전한다. 그러나 이들 정전 파괴의 행진은 소설의 종말에 이르면 체제유지적이며 봉건적인 발상으로 귀결되고 만다. 성의 금기를 벗어난 작중인물 중 죽음으로 귀결되는 대상은 어김없이 여성이다. 남성의 시각에서 황폐한 성의 여성을 죽이고 슬픔을 가장하면서 남성적 정전(正典)을 회복하는 것이다. '나'는 죽음의 장렬한 마무리성을 말하면서도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황폐하지만 화려한 고뇌와 슬픔을 읊조리는 주체적 존재로 남는 것이다. 이것은 소설가나 작중인물 주체의 자기인식이나 자기반성의 내성이 부족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4. 금기회귀와 성의 허무감

인간의 성이란 것은 동물의 주기적인 호르몬 분비에 의한 자연발생적인 성에서 벗어나고 있다. 성이란 맑은 시냇물 소리, 바람 소리, 찬란한 햇볕과 같은 자연 그대로이며 본능 그 자체이었다. 인간은 이러한 성의 근본에서 인위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호르몬 주기에 관계없이 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자연계에서 동물의 성에는 근친상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를 범접하고 위반한다.

인간은 사랑을 하고 성적 결합을 한 이후에도 결국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결여'와 '절대고독' 속에서 방황하고 고뇌하는 것이다. '성'이 '금기'를 위반함으로써 쾌락과 도취를 느끼게 하는 디오니소스의 축제 마당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성과 쾌락의 허망함과 허무함을 깊게 절감해야 하는 순환구조적 절대 운명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위반은 금기로 회귀하고 금기의 세계를 더욱 확연하게 굳혀 주는 영원한 동사로서 굴러다닐 뿐이다.

문학작품 속에서 '성'을 통한 위반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금기의 세계로 회귀하려는 주체의식을 드러냄으로써 동일자의 폭력성을 강조했을 뿐임을 발견하게 된다. 성의 과소비, 과대한 노출은 자연 그대로의 성, 나아가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위반과 정전파괴의 전사들이다. 그러나 그 황폐한 성을 통해

인간은 정전을 되찾고 금기의 세계로 회귀해야 한다는 절박한 절망감과 허무함을 절감할 뿐임을 확인하게 된다.